

2009년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신학의 역사과 중세 철학의 역사를 대학과 교회의 대학 가르치던 우리가 친애하는 마르코(Marco)가 몬짜(Monza)에서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르코가 신부님이 되기위해 공부하던 스위스 학생에게 쓴 편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벌써 신부가 된) 이 마르코에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저의 부제 서품식을 앞두고 마르코로부터 받은 편지를 찾았 습니다....이 편지는 저에게 있어서 그의 비범한 신학 정신과 마음을 표현하는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한 유일한 증거 입니다. 이 편지의 대한 내용을 저는 그의 영적 생활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학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구 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탈리아어를 잘 못하는 이국 신부들을 위해서 수십개가 되는 설교를 써 주고는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일들을 충실히 했으면서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해동안 몇번씩이나 이탈리아 수업을 무료로 배풀었습니다. 매번 “모두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서”라고 반복하면 말이죠.

...마르코는 단지 몸집이 크기만 할뿐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써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있어서 단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그의 높은 지식과 신학의 지혜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던 아주 훌륭한 모범 이었습니다. 저의 성소와 신부가된 후 사제의 삶에 있어서 그의 기도와 친애로 저에게 한 부분이 되는 큰 도움을 주었 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아주 어색했던 이 언어를 지금 제가 말을 할수 있고 쓸수 있고 또 해석할수 있는것은 모두 마르코의 덕분입니다. 단지 5개월 정도 밖에 여기 이탈리아에서 머문후에 내가 성 대려사 (Thérèse de Lisieux)에 대한 세미나후에 논문을 잘 끝낼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어를 가르치는 능력과 또 소중한 시간을 거침없이 저를 위해 투자했었기 때문 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르코의 편지는 아주 뜻깊어 보이고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제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 편지를 많은 미래의 사제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코 와 올림피아 아로시오가 (Franco e Olimpia Arosio)

설명:

마르코는 사제는 아니었으면 평신도의 교수로써, 올바른 신자로써 카톨릭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치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들은 뚜렷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매일 특히 자신의 전문직이었던 교수로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고 자신의 믿음을 일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너의 사제의 삶은 영원한 사랑의 성가가 될것이다....”

5 월 15 일 2006 년, 로마

친애하는...,

이번 5 월 20 일의 너의 부제서품식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게 될것 같다. 하지만 더욱 정직하고 가까운 기도로써 직접 참석 하듯이 같이 있도록 하마. 하느님의 제단에 앞서서 너는 첫 걸음을 줄것이다. 제단에 올라서 첫 단계를 오르고 너는 서서히 너 자신을 영원히 사제로써 봉헌하는 삶으로 이끌것이다.

너는 숭고하고 고결한 성소를 받았다. 즉 구원의 희생을 거행하고, 성체를 충성하고, 미사를 통해를 비록 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느님께 굳게 의지하는 교회안에서 진실이며 살아있고 또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출두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곧 몇달안에 이 미사를 집전하는 이 기특한 사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성사를, 특히 미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사람이며 사제로써 너 자신을 형성해야 함을 필요로 한하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너가 미사를 집행할 때는 무엇보다 너의 모든것을 감싸는 시간과 삶과 그리스도의 대한 사랑을 곧 자기 자신을 희생재물로써 바쳐야 한가는 것을 잊지마라.

특히 영적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힘들때나 어려울때나 고통스러울 때가 부족하지는 않을것이다: 곧 이 책임에 따른 짐 또 죄와 악마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재시대의 교회에가 가지는 대한 부정해위에 대한 사건들 또 불 공평한 박해, 잔혹하고 말이 안되는 한편만의 믿음(in partibus-fidelium)은 너의 사제의 삶에힘든 시련을 줄것이다.

항상 온전하고 불곡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잡고 놓지마라.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도구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는 무기이다. 항상 십자가의 발 밑에서 마리아  
어머니와 같이 머물러라. 마리아님은 너의 사제의 성소를 온전하게 해주는  
절대 부족해 지지 않는 원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거대한 은총의  
힘을 들어내는 장소이다. 땅으로 부터 올려져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과  
또 땅끝까지 모든 장소까지 자기 자신한테 이끌어 주신다.

“그리스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은 고대의 법칙이다. 너가 만약  
단순하고 겸손해 지고 싶다면 모든 사제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의 삶은  
온전히 복음에 따르게 만드는 법칙이라고 할수 있다.

매일신부는 동정녀의 탄원을 통해서로써의 기도와 사랑과 또  
묵주기도등은 의무에 충실하게 하는 즉, 우리를 영적의 삶에 있어서 더욱  
하느님과 가까운 삶을 선사해 준다.

신부로서 너는 항상 충실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첫 줄에 있는  
군인처럼 싸우며 적에게 자리를 주지 않도록 결코 뒤로 한꿈치도 걸어가지  
않도록 말이다.

신앙인 으으로써의 사제, 수도,수녀 또는 결혼하는 평신자의 삶은 마치  
마라톤과 비교가 될수 있다. 마지막까지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도착하는  
자만이 이긴다. 뛰는 도중에는 조절하면서 단 한번에 다 지쳐버리지 않도록  
달리며 마지막 까지 모든 힘을 써 가며 달려야 한다. 자기 자신을 하루마다,  
매달마다, 또 매해마다 조절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편 81 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쉼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마음의 지혜를 가질수 있도록 이루워 주소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몇마디  
더 먼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다. 마라톤은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달리는 것이다. 우리는 관광객 처럼 잠시동안 모든

힘을 써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까지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다.  
절대로 길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신부는 되지 말아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며 끝까지 달려야 한다.

너는 영원히 사제이다(Tu es sacerdos in aeternum). 하느님은 너가 너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힘을 주면서 그분을 모실수 있도록 너를 부르셨다. 너는  
이제 더이상 허무한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는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경탄스러운 하느님의 왕국을 이룩하기위해 인간의  
힘으로써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다. 이 하느님의 왕국은 벌써 임박했지만  
아직 도착은 안했다. 도착하는 시기에는 영원무궁하게 통치 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한번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영혼들은 못찾는데에 대한 걱정을  
나한테 말한적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정 반대로 기뻐해야 한다.  
자신의 의무에 대해 충실하고 또 성스러운 신부는 마치 어둠속에서 빛나는  
큰 빛과 같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방랑하는 영혼들에게 걱정과 악과  
죄로부터 탈출하여 빛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 만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힘이 있다. 너는 나가서  
찾는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기다려야 한다. 중요한것은 너가  
진실되게 너의 성소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성스러워질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단  
한가지 방법이 있다, 아주 간단하다. 복음에 충실하여라. 성직자가  
충실하고 성하면 평신도가 성하게 되고 또 가족이 성하게 되며 신학교  
학생들이 성하게 되고 또 수녀 와 주교까지 다 성스러움에 물들게 된다.

이것은 은총의 연결고리 로써 좋음은 펼쳐지게 말연이다(*Bonum è diffusivum sui*).

신부는 마치 자석과 같다. 자석처럼 사람들을 단지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 자신이 받은 은총을 통하여 영혼들을 자신으로 끌어들이는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성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한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왔지만 저는 단 한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대려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되었고 또 저는 마치 법아래 있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모든이에게 모든이가 되었습니다.*” 사목의 삶의 비밀을 전부 여기에 있다. 다른 모든것은 전부 뒷말들이다. 신부는 죄안에 있는 사람들 고통중에 사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석과 같은 존재이다. 특별히 영적으로써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말이다. 복음안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문둥병환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 아픈 사람들이다. 마태오는 왕의 아들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을 찾지만 찾지못하고 결국 길거리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와의 만찬에 초대받았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 이자 또 모든 성함의 원천이다.

사제는 또 목자이다.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는 그를 좋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같도록 이끌어 준다. 목자으로써 양들을 이끄는데에 있어서 신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후에 만찬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가르쳐주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이면서서 시종을 받으시오 오시지 않고 남을 위해 시종을 하러 오셨다. 그러니 이 겸손을 밑 바탕으로 신부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데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다. 베르라르도 성인은 말한다,  
“겸손은 순결에게 큰 의미를 주고 순결은 겸손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순결함은 아무런 의심없이 덕행이며 겸손은 정말 필요한 조건이다.  
첫번째는 좋은 권고 이며 두번째는 명령이다. 첫번째에는 초대받았으며  
두번째에는 의무이다.”

너는 어느 양때의 목자가 될것이다. 작거나 크거나 하는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도시에 있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시골에 있거나  
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께 봉헌된 제단이 있는곳에 바로 교회가  
있다.

양때는 목자 보호 아래에 있다. 바로 여기에 두가지 목자의 특성이 있다.  
정말로 자신의 양때는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받치는 목자거나  
아니면 단지샅꾼 처럼 이리를 보고 도망치는 가까 목자이다. 바로 이  
진정한 목자가 되는것이 바로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 너가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서 있을때 바로 이 목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너에게 할 것이다.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아니라고 할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영혼들,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이것들을 자기의 사제들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열정으로 사랑해라! 너에게 주어진 양때중 단  
한마리라고 잃어 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여러마리를 복음의 말씀처럼 더  
찾아라. 심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떨어버리지 말아라. 그들의 약함과  
한계와 결점에 대해서 자비를 가져라. 마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라.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시켜라. 사랑해라! 바로  
여기에 모든것이 있다.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양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받친다. 반면에 샅꾼은 위험 앞에서 도망쳐 버린다. 오늘날에 이 이리는  
무엇인가? 직접적이 학대가 없는 반면에 이리는 바로 이 비평이다.

매일매일의 이해를 못하는 말이 안되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와 교회에게 있어서 순교이다. 신문과 보도들은 진리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위선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절대로 무서워 하지 말아라. 또 증오로 대답하지 말아라. 하느님의 힘에 기대하는것에 걱정하지도 말아라. 하느님의 충실하고 변함없는 하느님이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하자 하지만 우리의 적으로 부터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단련시킨다 마치 불 도가니 안에서의 금처럼 말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보호는 바로 하느님이다. 그분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공평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진정한 목자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스도 역시 진정한 목자로서 도망치지 않고 모든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에서 부터 도망치지 않으셨다. 신부가 된다는것은 이처럼 평생을 충실히 살겠다고 명세하는 것이다. 우리 유럽의 교회에 있어서 이 삶을 준다는 것은 양떼를 위해 죽는다가 아니라 양떼를 위해 산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일치되는 삶을 요구하는 고된 세가지 약속이다. 순결과 가난과 순종이다. 순결은 절대로 열등한 마음자세 사는것이 아니다. 가난은 원해서 복음과 같은 자세로 사는대에서 나오는 것이며 순종은 교회의 권력전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 아래에 사는데에서 뿌리를 둔다.

사제의 삶은 힘들지만 멋진 삶이다. 마지막 까지 느리다거나, 확실하지 않다거나 하는사제의 삶의 아름다움을 망칠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것은 당신의 것(*Totus tuus*). 영혼들의 일에 있어서는 모든것은 하느님께 달려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즉, 자비심을 가지고 또 완전한 자유를 진실로 보며 사랑하고 자신의 신조에 있어서 강하나 남의 의견에 열여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수 있도 또 남을위해 배풀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문제들이나 고역들이 신부의 신조와 소원을 공격할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게 드린 젊은이로부터 떨어 트릴수 있겠느냐? 이 사랑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또 그 어떤것도 떨어 트릴수 없다. 만약 너가 직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들을 찾기 않는다면 모든것은 정말 은총이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으랴 있겠습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역경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사도는 이 모든것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에 의하며 승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너가 하느님의 제단 앞에서 약속하는것을 두고 나는 사도의 말을 빌려서 다시 너에게 당부하고 싶다.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고통을 받아드릴수 있도록 하고 또 하는일에 있어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이 얼마나 완벽한 사제의 성소의 요약인가! 단지 서명하는 종이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약속이 하루하루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이 일에 있어서 하느님이 너에게 은총을 내리기를 비란다.

너는 너의 삶에 있어서 은총의 원천인 이 하느님과 끈임없는 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너의 모든일을 사랑 안에서 실행하여라(Omnia vestra in caritate fiant)* 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한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도록 해라. 너의 사제의 삶은 영원한 사랑의 성가가 될 것이다. 이 성가는 천국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과 화합되는것과 함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새로운 아굽의 계단이 될것이다. 사제의 삶이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대답이다, 바로 매일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사람과 하느님을 연결해주는 바로 이그리스도의 사제가 되는 것이다. 항상 모든 영혼은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사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대에 있다.

나는 한해동안 너와 직접적으로 로마에서 그리고 또 다른해때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도로써 너의 길을 걷는데 동반을 했다. 너는 거의  
이 길의 종점에 도착했다. *겉에서 살지 말고 너 안으로 들어가라. 사람의  
내면안에 진실이 존재한다(Noli foras ire: in te ipsum redi. In interiore  
homine habitat veritas).* 라고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한다. 항상 너 안으로  
들어 가서 자신을 살펴 보아라 특히 기도안에서 말이다. 기도란 사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너가 지금쯤 부제 서품식을 앞두고 마지막 걱정과 의심을  
가질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감사해야할 시간이다. 하느님에게 너의 성소를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너의 큰 성소를 깨닫고 너의 사제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더욱 이 성소를 사랑할수 있도록 해라.

너에게 나의 큰 축하를 전한다. 오늘부터 너의 서품식까지 매일  
기도안에서 너를 기억하마. 매일 받치는 이 묵주 10단도 너를 위해서  
지향하마. 나는 너가 너의 서품식때의 사진 한장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사랑한다.

마르코 아로시오 교수

